

## <별에서 온 새내기(가제)> 지정연기 대본

S#1. 강의실, 낮

조교가 강의실에서 노트북으로 분주히 작업을 하고 있다. 메일 알림소리가 들리고, 조교는 메일을 확인한다. 노트북으로 교수님으로부터 온 메일이 보인다.

교수님(NA): 일정 촉박하니까 오늘 밤까지 저번주 통계 결과 정리해서 보내주세요.  
시현학생한테는 작게라도 역할 줘서 일 잘가르쳐보고. 파일은 원본이니까 조심.

조교는 잠시 억지로 평온상태를 만드는 듯한 표정으로 작업을 멈추고 메일을 본다.

조교: (화를 누르며 빠르게) 300명 짜리 설문조사를 (딱 책상을 치며) / 어떻게 (딱) / 일주일만에 / 정리하라는건지 정말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수가 없네...(머리를 헝클인다) 혼자하면 차라리 편할거 1학년은 왜 붙여줘 아 그냥 안그래도 없는 머리 깔끔하게 다 빠져버려ㄹ- (머리를 꼬다가 한 손으로 타자를 치려한다)

교수에게 답장을 보내는 조교, 조교는 입술을 짹 깨물고 있다.

조교(NA): (오버랩 / 상냥하게) 넵, 교수님^^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~

전송버튼을 누르고 정신차리려는 듯 머리를 흔들며 다시 집중하려는 조교. 목을 까딱까딱하다가 결눈질로 핸드폰을 확인하니 카톡 알림이 떠 있다. 알림을 눌러 들어가자 카톡에는 늦을 것 같다는 새내기의 문자와 함께 상큼한 이모티콘이 가득하다.

(화면 인서트)

새내기(NA): 조교님~ 저 10분정도 늦을 거 같아요! ㅠㅠㅠㅠㅠㅠㅠㅠ 죄송해요ㅠㅠ

조교 : (살짝의 경멸, 혼잣말로) 불길한데...

급하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. 빨간 과자에 샤랄라 치마입은, 색깔실핀 여러개 꽂은 새내기가 헐레벌떡 문열고 들어온다.

새내기: (숨을 몰아쉬며) 휴 안녕하세요...!

조교(NA): 불길한 정도가 아닌거 같은데

조교는 살짝 짜증이 나는 듯 하지만, 자본주의 웃음으로 맞이한다.

새내기: (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) 저기...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. 제가 일찍 나온다고 나왔는데 버스가 계속 안와지고요.. ㅜㅜ

조교: 아닙니다. 강의실이라도 잘 찾아오셔서 다행이네요.

새내기는 살짝 어리둥절하다가 칭찬인 줄 알고 수줍게 끄덕거린다.

새내기: 다행.. (끄덕이며) 아 냐..! (새콤 달콤을 꺼내며) 아, 그... 혹시 새콤달콤 좋아하세요? 사과의 의미로..

조교: (약간 당황하며) 예? 아.. 괜찮아요.

새내기: (초롱초롱한 눈망울) 그래두,,

조교: 아뇨 진짜 괜찮아요.

새내기는 울망한 눈빛으로 새콤달콤을 계속 건넨다.

조교(NA): 뭐야 애 진짜;

새내기는 더 건넨다.

조교: 아니 진짜 괜찮아요 신걸 안좋아해서

새내기: (세상이 망하는 듯한 톤으로) 아,,,,네..

조교는 무안한듯 시선을 돌리다 시계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.